

8세기 통일신라의 다리 - 문천 월정교와 불국사 계단형 돌다리

이덕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dsrhee@cerik.re.kr

사서(史書)에 기록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다리로는 월정교(月淨橋)·춘양교(春陽橋)와 불국사(佛國寺) 경내 돌다리들인 백운교(白雲橋)·청운교(靑雲橋) 및 연화교(蓮花橋)·칠보교(七寶橋)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월성(月城) 남쪽 문천(蚊川)에 놓았던 월정교와 춘양교는 「三國史記(삼국사기)」 「新羅本紀(신라본기)」 경덕왕(景德王) 조 19년(760) 2월에 “궁중에 큰 못을 팠다. 또 궁성 남쪽 문천 위에 월정교와 춘양교 두 다리를 놓았다(宮中穿大池又於宮南蚊川之上起月淨春陽二橋)”고 했듯이, 그 가설 시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앞서 언급(「CERIK저널」 8월호)했던 문천교가 「三國遺事(삼국유사)」에서 확인된 때보다 한 세기 이상 늦게 건설되었고, 불국사와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셈이다. 춘양교는 후에 일정교(日淨橋)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전설과 어우러지면서 칠성교(七星橋)·효불효교(孝不孝橋)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월정교 - 누각교로 복원

지금으로부터 1,250여 년 전에 건설되어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중수되었던바 적어도 520년 이상 존속하다가 훼손된 월정교가 복원되고 있다. 경주시 교동 옛 요석궁 터 인근에 복원 중인 월정교는 복층 문루(門樓)를 포함한 화려한 누각교(樓閣橋)로 건설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원성왕(元聖王) 14년(798)의 “춘삼월에 공남루교가 불탔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궁궐 남쪽 누각교를 월정교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각지(橋脚址) 발굴 조사 당시 건물 지붕에 사용하는 연함(椽檻)을 비롯한 목조 가구(木造架構)와 불에 타다 남은 목재 조각, 막새를 포함한 다수의 기와 조각 등이 출토됨으로써 월정교가 석축 교각 위에 누각 다리를 올린 누교(樓橋)였음을 확인하였다. 발굴 당시 전체 다리 길이는 60.57m, 각 교각지 사이의 중심간 거리는 12.55m로 세 경간이 동일했으며 교대와 교각 사이는 11.46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5월 착공한 교동 남천(南川), 월정교 복원 공사는 교각(10단 쌓기) 및 누교는 완성했지만, 2015년 가을 현재 양쪽 문루(門樓)는 건립되지 않았다. 복원된 월정교는 길이 66.15m, 폭 9m, 높이 9m 규모이다. 양쪽 교대 사이에 석축 교각 넷을 세우고 그 위에 목조 누각 다리를 얹었다.

김대성의 효심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옛 다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경주 불국사 경내의 돌다리들이다. 불국사를 창건하기 시작한 때가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10년(751)이었으며, 완공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일설에는 공사를 시작한 지 39년 만인 원성왕(元聖王) 6년(790)에 완공했다고도 하지만 정설은 아니다. 어쨌든 불국사의 계단형 돌다리들 역시 지금으로부터 1,220여 년 전인 8세기 후반의 불국사 완공 시기와 맞물려서 축조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 설화를 적고 있는 「삼국유사」(大城孝二世父母(대성효이세부모))조에는 “경덕왕 대에 대상 대성이 천보 10년 신묘년에 처음으로 불국사를 창건하기 시작하여 혜공왕 대를 거쳐 대력 9년 갑인년 12월 2일에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공사를 마쳤다(景德王代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歷惠恭世以大曆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國家乃畢成之)”고 하였다. 즉,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金大城)이 751년에 불국사의 창건을 시작했으나, 그가 완공을 보지 못한 채 혜공왕 10년(774)에 죽자 나라에서 이를 완성했다는 내력이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



복원 중인 월정교

암)를 세웠다(乃爲現生二親創佛國寺爲前世翁孃創石佛寺)”고 기록했으며, “불국사의 구름다리와 석탑은 그 나무와 돌에 새긴 노력이 동도의 여러 사찰 중 어느 것보다 뛰어나다(其佛國寺雲梯石塔彫鏤石木之功東都諸刹未有加也)”고 평가했다.

佛國으로 오르는 무지개다리

‘부처님의 나라’ 불국은 돌로 높이 쌓은 2층 기단 위에 건설되었다. 아래층 석단은 큼지막한 자연석으로, 위층 석단은 크고 작은 냇돌을 쌓아 안정감을 더 하였는데, 이 석단의 아래는 차안(此岸) 사바세계요, 석단의 위는 곧 피안(彼岸) 불국정토(佛國淨土)인 셈이다. 그 불국정토로 오르는 길은 두 곳으로 나 있다. 백운(白雲)·청운(靑雲)의 두 다리를 건너 33계단을 오르면 대웅전(大雄殿) 앞 자하문(紫霞門)에 이르고, 연꽃을 새긴 연화(蓮花)·칠보(七寶) 두 다리의 계단을 오르면 극락전(極樂殿)으로 통하는 안양문(安養門)에 이르게 된다. 세속, 즉 사바세계에서 불국정토로 인도하는 이 다리들 백운·청운, 연화·칠보교

가 바로 현존하는 통일신라 이전의 돌다리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다리들인 것이다.

이 다리의 돌계단들은 보살(菩薩)의 수행 계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은 차근차근 공덕의 계단을 밟아 오르는 것이며, 공덕의 한 계단 한 계단은 곧 공덕을 쌓아가는 보살행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백운교·청운교도, 연화교·칠보교도 오르지 못한다. 막혀 있기에 다만, 바라볼 뿐이다.

청운교·백운교... 청춘과 노년을 상징

자하문을 오르는 청운교·백운교는 연화교·칠보교의 오른쪽에 위치하였으며 두 개의 돌다리가 층을 이루며 45°의 경사로 높다랗게 걸려 있다. 연화교·칠보교와 마찬가지로 다리 형태를 한 33단의 돌계단인데, 아래쪽 17단이 청운교(높이 3.82m, 너비 5.11m, 길이 5.4m), 위쪽 16단이 백운교(높이 3.15m, 너비 5.09m, 길이 6.3m)이다. 불교에서 33이라는 숫자는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33가지 단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화강암 장대석으로 계단을 놓고 그 양쪽 등연석(登楯石) 위에 돌기둥을 세웠으며 그 법수에 둥근 돌난대를 걸어 하엽동자로 받쳤다. 계단 위에 설치한 세 줄의 등연석은 거대한 돌을 각각 너비 70cm, 길이 6.2m로 다듬어 놓았다.

청운교와 백운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站) 아래로는 홍예(虹霓, arch)를 틀어 장방형의 돌기둥으로 받쳤다. 홍예는 반원을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돌기둥과 어우러져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돌다리나 성문 홍예

의 시원(始原)을 보여준다. 또한 계단 아래 좌우 측면은 판석으로 막고 가로 세로로 증방을 세움으로써 목조 건축과 같은 형태를 하였다. 청운교 홍예 아래는 원래 구품연지(九品蓮池)로 흐르는 물길이었으며, 백운교 홍예는 석축 허리에 설치된 통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푸르른 청년을 비유한다는 청운교와 백발의 노년을 비유한다는 백운교. 이렇듯 인생을 상징하며 사바에서 불국으로 오르는 무지개다리 청운교·백운교는 1962년에 국보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화교·칠보교

청운교·백운교의 왼편, 극락전(極樂殿) 앞 안양문을 오르는 18단 계단 모양의 돌다리가 국보 제22호(1962년 지정) 연화교·칠보교이다. 아랫단 10단이 연화교(높이 2.31m, 너비 1.48m), 위 8단이 칠보교(높이 4.06m, 너비 1.6m)인데,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웅장한 멋을 풍기는 청운교·백운교보다 경사가 완만하여 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디딤돌마다 연꽃 모양의 안상(眼像)을 아름답게 새겼으며, 가운데로는 바둑판 형태의 무늬 열개를 이었다. 돌계단 아래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홍예를 틀었고, 계단 양쪽으로는 돌기둥을 세워 그 법수와 하엽동자로 둥근 돌난대를 연결하였다. 이 연화교·칠보교에는 현강왕비가 비구니가 되어 왕의 극락왕생을 빌며 오르내렸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연화교·칠보교는 1916년경에 일본 사람에 의해 해체 수리되었다가 1968년에 다시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CERIK